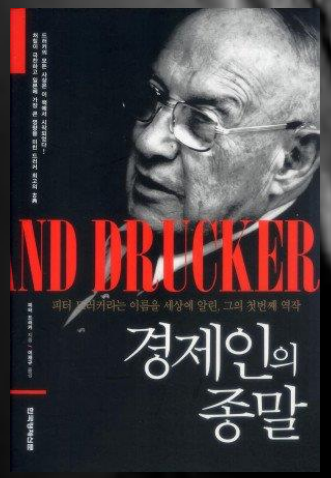
#3

피터드러커의

THE END OF ECONOMIC MAN

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

경제인의 종말



PETER F.DRUCKER
SOCIETY OF KOREA

악마의 복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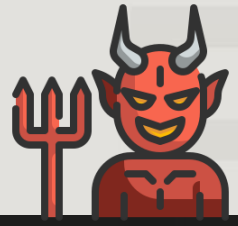


제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밝혀준 것



제 1차 세계대전
(1914~1918)

두 개의 대재난



대공황
(1929)

개인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신념의 **붕괴**를 실제적으로 경험

즉, 사회를 지배하는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**'악마의 세력(demonic forces)'** 인지

PETER F.DRUCKER SOCIETY OF KOREA

제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밝혀준 것

제 1차 세계대전의 의미

기계론과 합리론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듦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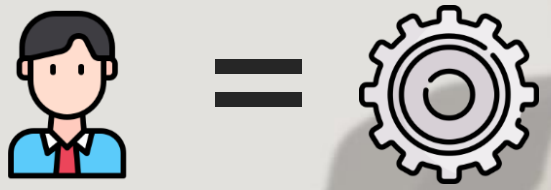
→ 인간은 자신들이 세계의 소외된 무력한 개체임을 깨달음

→ 사회 속 개인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구성원,
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회의
개념=**환상**

1929년 대공황의 의미

비합리적이고 계산 불가능한 세력들이
평화시의 사회도 지배하고 있음을 밝힘

→ 개인은 사회에서 소외되었으며 낱낱의 개체로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함



제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밝혀준 것

지금까지 일어난 전쟁의 의미 =끔찍한 악이지만 합리적인 것

1차 세계대전은 **왜** 혼란스러웠는가? → IF) 그렇지 않았다면?

제 1차 세계대전의 명분



연합국(미국)의 입장

세계의 민주주의 수호



동맹국(독일)의 입장

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에 반하여
전쟁을 치른다는 확신 -> 패배의 원인

제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밝혀준 것

가난한 국가 대 부유한 국가

전쟁을 통해서라도 이상(理想)을 실현하려 함

Q. 왜 실패 했는가?



A. 이상과 현실의 괴리

“가난한 국가 대 부유한 국가”
(have-not versus have nations)

제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밝혀준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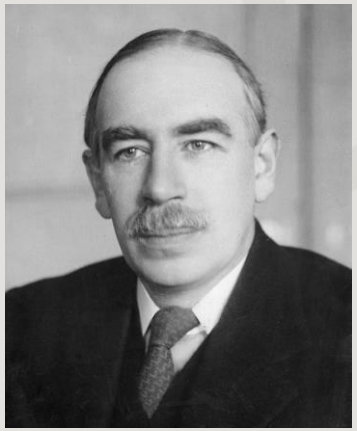
지금까지 발생했던 공황의 의미 #1830년 #1873년

=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현상 =경제 발전의 대가 & 자유평등 사회 실현 =‘자연 치유’ 과정

1929년 대공황은 과거의 공황과 달리 의미가 없었다.

사람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 더 이상 희생할 의사X

경제 발전 ≠ 최상의 목적



#John Maynard Keynes



#Irving Fisher



#Major C. H. Douglas

화폐이론 (monetary theory)

제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밝혀준 것



:: 인간이 만든 악마들

역사적 '증거들'에 대한 무관심+우주 만물을 기계론적·합리적 질서로 형성하려는 시도

악마들의 복귀(the return of the demons)로 귀결

↓

극단적인 원자화, 비현실성과 무의미, 질서와 사회, 합리적인 개인의 실존 파괴

악마의 추방

애처로운 노력

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한 전통 노선을 따라 사회를 발전,
래선
윌슨 대통령의 <14개 조항>, 국제 연맹, 집단 안보, 집단 군축



민주주의적 이념을 사회 영역에서 국제 영역으로 확대 적용→ '국제적 계급투쟁' 발생 →자유&평등 촉진X

폐기된 이든의 주장 "보다 큰 전쟁이 터진다는 위협을 통해 현실의 전쟁을 잠재울 수 있다"

→ 지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정당화

윈스턴 처칠의 강경론, 어떤 대가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대독 유화론의 등장

→ 공통적으로 자유평등 사회의 회생을 위해 전쟁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포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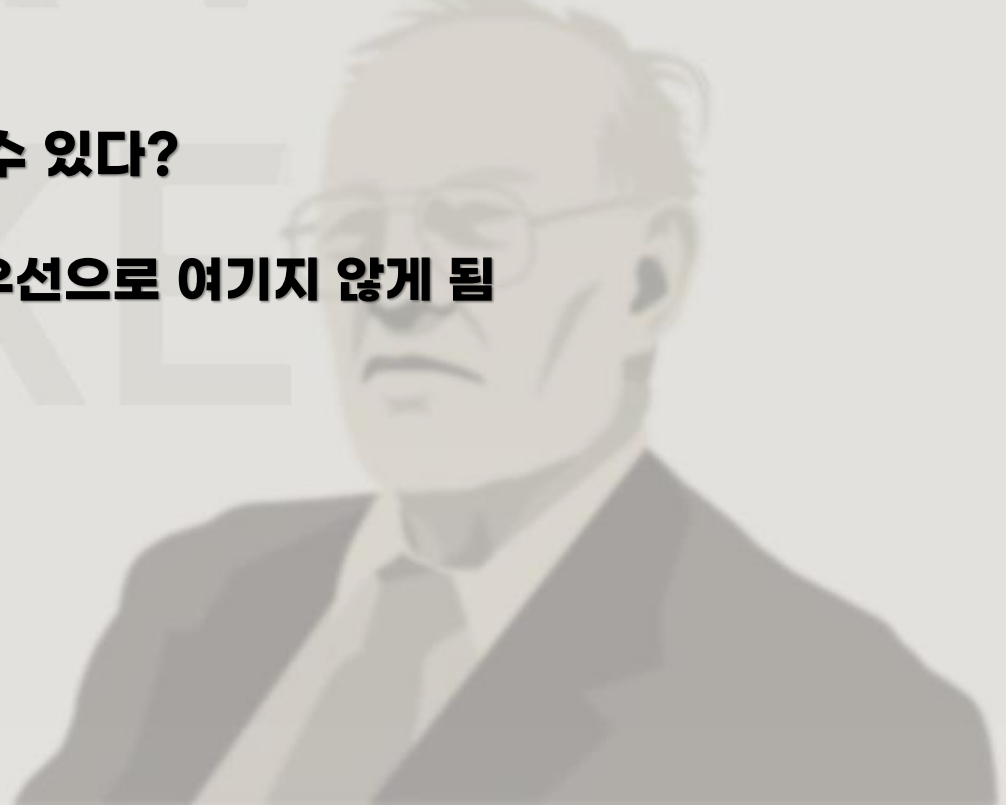
악마의 추방

- 공황의 방지라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.

  ‘통화주의자’가 이러한 기적을 믿는 것 자체가
  전통적인 경제 질서를 발전시키고 개조해도 악마 퇴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

- 전쟁과 대공황을 막을 수 있다면 자유와 평등도 포기할 수 있다?

  전통적 사회 or 악마 퇴치 중 하나를 포기 →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게 됨



자유의 포기



경제 발전에 대한 저항

1. ‘유럽의 일원 ' 이 되길 거부한 발칸 반도, 그리고 발칸화
2. 농업의 저항, ‘대규모 농장’ 징후 ↔ 농업의 보호
3. 쇠퇴하는 민주주의

최고의 보편적 목적이 된 ‘안전’

PETER F.DRUCKER SOCIETY OF KOREA

자유의 포기

자유를 포기한 사람들 ; 경제적 자유는 자율적이고도 최상의 가치를 가졌다는 의미를 상실 → 대안책 X

도대체 자유란 무엇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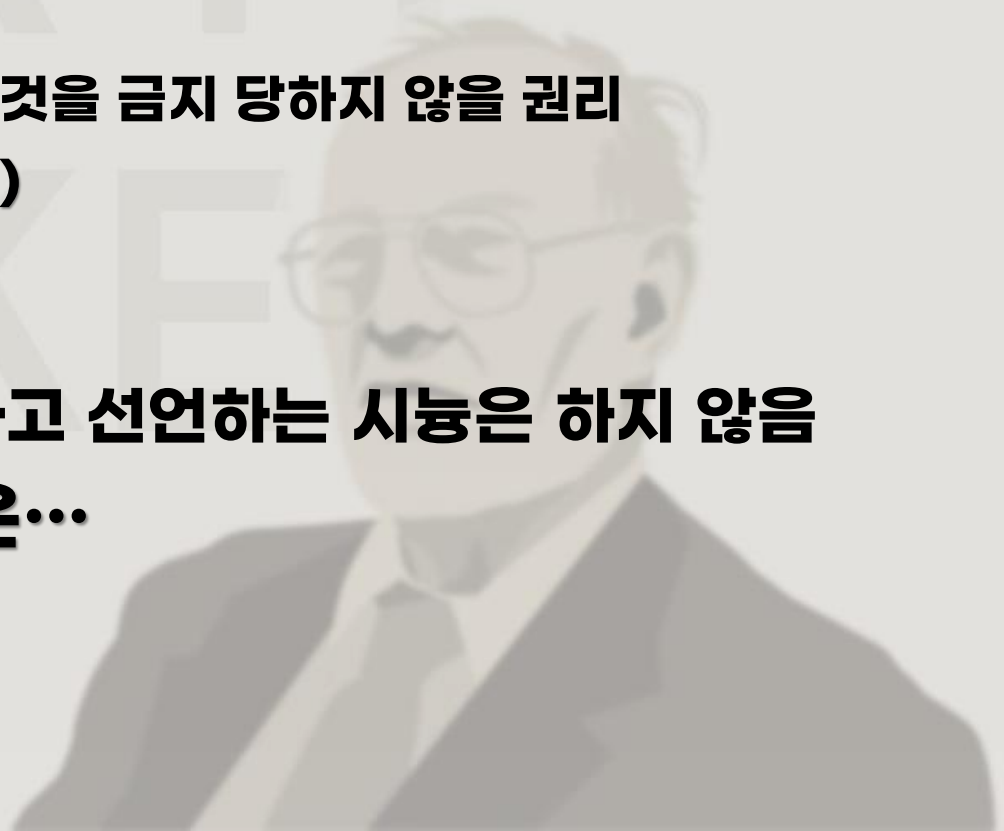
= 개인의 권리

= 개인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금지 당하지 않을 권리

= 개인에 대한 다수의 권리 (New!)

루이 14세도 자유 실체를 철폐할 때 자유가 있다고 선언하는 시늉은 하지 않음

→ 하지만 파시즘은…



파시즘이라는 마법사의 출현

파시즘의 출현

1. 사라진 실질적 민주주의,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 민주주의
2. 새로운 질서와 이념, 그리고 자유를 실현할 영역 부재



파시즘의 특징

‘합법성’&‘법률적 연속’ 강조

구질서의 실체는 파괴하면서 껍데기는 신중하게 유지

“진실은 가짜이며, 거짓말은 진리이다.”

대중이 파시즘과 나치즘에 몰려든 이유

과거에 대한 부정+거부

파시즘, 나치즘=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마법사

